

2023. 7. 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행정국 남북협력과

남북협력과장	윤 정 회	2133-8660
--------	-------	-----------

정착지원팀장	김 인 병	2133-8668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7매

담 당 자	임 정 민	2133-8672
-------	-------	-----------

서울시-남북하나재단-기술교육원 손잡고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나선다

- 북한이탈주민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7.6(목) 오후 3시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프로그램' 을 위한 협업 강화
- 청년층을 위한 정보기술 교육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도 협력

- 서울시는 7.3.(목)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남북하나재단, 중부·남부 기술교육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특성에 맞는 선호 직종 교육 및 취업연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소재 00대학교 전자전기 공학부를 졸업한 탈북청년 A군(29)은 “열심히 공부하여 배운 정보기술을 살려 취업하고 싶다.”고 희망하였고
- B군(29)도 "정보기술 분야 발전이 빠른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나의 재능이나 적합성에 대해 도전해보고 싶고, 기술교육을 받고 해당분야에 취업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 남북하나재단 직업훈련교육 상담 사례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보기술,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전문적 업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기술교육 후에 분당 IT 벤처타운 등

취업처를 발굴·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협약식은 서울시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김종원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 협약서에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개선 홍보 등 정책 발굴 및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교육대상 발굴 및 취업적성 상담·기초교육 실시 ▲전문기술 교육실시 및 맞춤형 취업연계 지원 등의 협력내용이 담겨있다.

-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개선 홍보를 통한 편견 해소 정책 발굴 등 취업환경 조성의 역할을 맡게 되고,
- ‘남북하나재단’은 교육대상 발굴 및 취업적성 상담 서비스, 사전 기초 교육 지원과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창출 등에 협력할 계획이며
- ‘중부·남부기술교육원’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기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기술훈련, 산업체와 연계한 취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남북하나재단, 중부·남부기술교육원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기술교육과 취업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사업을 구체화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와 협력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급변하는 취업환경 변화에 맞춘 기술교육을 통해 탈북민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향후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종원 중부·남부 기술교육원 원장은 “ 기술교육원은 우수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운영 기본 방침에 따라 탈북민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목표를 성취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자리’인 만큼 전문기술교육과 취업연계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지원 이외에도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계속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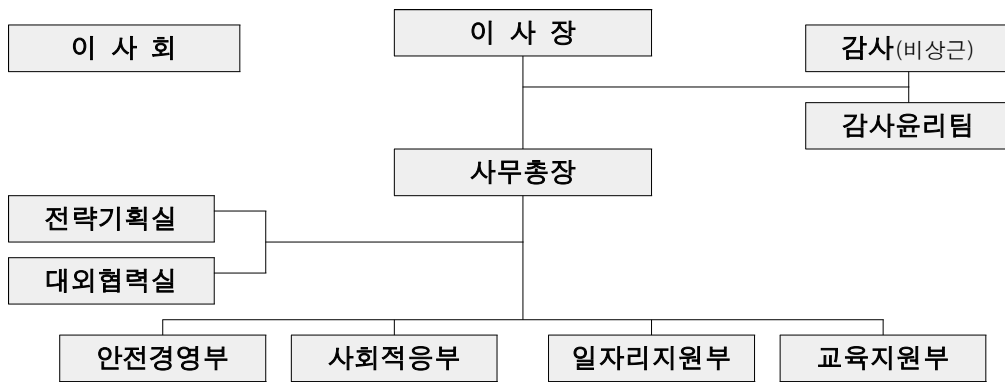
※ 협약식 사진은 7.6.(목) 15:30 행사 종료 후 제공

설립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자립 정착지원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
 - 설립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구성



- 인력현황 : 172명(일반직군 및 상담직군)
 - ※ 전체 직원 중 북한이탈주민 46명(26.7%) 근무 중('23.5.31. 기준)
- 2023년 예산 : 38,831백만원

주요사업 및 기능

- (초기정착)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
- (일 자리) 취업·창업 지원, 직업역량 강화 등 자립·자활 지원
- (교육장학) 장학사업, 교육·보호시설 등 청소년 성장환경 지원
- (인식제고)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및 사회통합 지원
- (조사연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정착금) 정착금 지원 및 관리 운영
- (하나센터) 전국 하나센터 운영 지원
- (기부금) 기부금 조성 및 관리·운영 등

□ **설립목적**

- 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 능력을 제고하고 서울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 근거 : 직업능력개발법,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술교육원 운영현황**

- 수탁법인 : 한국생산성본부('22.3.1 ~ '25.2.28, 3년간)
- 시설현황 : 2개 캠퍼스 운영

구 분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위 치	용산구 한남대로		경기도 군포시		
규 모	대지(m ²)	5,521	58,523		
	건물(m ²)	6,919	18,781		
현원(명)	37		25		

- 2023년 예산 : 7,910백만원(남부 3,415백만원 중부 4,495백만원)

□ **교육과정**

훈련기관	과 정	훈련기간	훈련학과	훈련과정
중 부 22개학과 1,130명	정규과정 (15개 762명)	주간1년 (6개 186명)	글로벌조리, 인테리어디자인, 주얼리3D프린팅, 패션디자인, 한국 의상, 헤어뷰티	
		주간 6개월 (3개 200명)	방송영상크리에이터, 웹콘텐츠디자인, 카페베이커리	
		야간 6개월 (6개 376명)	글로벌조리, 인테리어디자인, 카페베이커리, 컴퓨터그래픽디자인, 패션디자인, 헤어뷰티	
	단기과정 (7개 368명)		파이썬활용빅데이터 분석(주,야), 전산세무회계ERP, 방송영상크리에이터(야), 뷰티마케팅e커머스, 요양보호사, 그래픽기술활용, AI학습데이터구축	
남 부 16개학과 608명	정규과정 (12개 480명)	주간 1년 (5개 130명)	가구디자인, 자동차, 전기, 가구디자인(심화)	
		주간 6개월 (7개 350명)	건물보수, 바리스타디저트, 옷칠나전 조경관리, 헤어디자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단기과정 (3개 110명)		요양보호사, 친환경가구제작, 승강기산업기사	
	외국인과정 (1개 20명)		K뷰티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청」, 「남북하나재단」, 「서울특별시 중부·남부 기술교육원」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에 대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각 기관의 직업교육-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각 기관은 상호 사업을 존중하며 본 협약에 의한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력 내용) 각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한다.

1. 남북하나재단은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의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에 대하여 모집, 사전교육, 홍보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2.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에 대한 가점 부여, 우선 선발 등을 지원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설 등 재단의 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한다.
3. 서울특별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인식개선 홍보 등 편견 해소 정책 발굴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한다.
4. 각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취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및 협력한다.
5. 기타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 각 기관은 협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목적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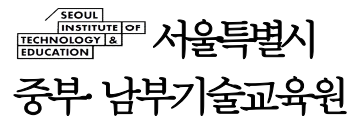
제6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제반 정보를 본 사업 외 목적에 사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의 종료 후에도 비밀 유지의 의무는 유효하며, 위반 시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상호 간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7월 6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시장 오 세 훈
(代) 행정국장 정 상 훈

이사장 조 민 호

원장 김 중 원